

포충사의 의병들-무대로 만나는 인문학

기고

이창수

광주 남구 주민행복
담당관실 주무관



광주시 남구 원산동 포충사는 1592년 음력 7월 금산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순국한 고경명과 둘째 아들 인후 의병장 안영과 유팽노 진주성2차전투에서 순국한 장남 중후를 배향한 공간이다. 포충사는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장성 필암서원과 함께 살아남은 광주·전남의 유일한 서원이다.

1592년 음력 4월 왜군은 부산에 상륙하자마자 부산성과 동래성을 차례로 점령하고 충주 탄금대에서 결사 항전하는 신립마저 무너트렸다.

부산 앞바다에 닻을 내린 불과 20여 일 만에 한양마저 점령하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양을 지킬 것이라던 선조는 종묘사직과 백성을 버리고 평양으로 도망쳤다. 이때 경복궁이 불탔고 도망치는 선조의 가마에 백성들이 돌을 던졌다 한다. 순식간에 국토가 유린당해 근왕군을 모집하려 해도 충청도 일부와 전라도밖에 없었다.

고경명이 의병을 모집하기 얼마 전 전라관찰사 이광이 4만명 충청도 관찰사 윤선각이 8천명 경상도 관찰사 김수가 100명 남짓한 근왕병을 모집하였다. 왕을 구원하러 한양으로 가다가 용인에서 와키자카 야스히로의 1500명에게 반격

당해 5만 대군이 무너져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고경명이 의병 6천을 모았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다.

창평에서 창의사로 추대받은 고경명이 서울로 진격하다가 일본6군 고바야카의 부대가 전주를 점령하려고 금산에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말머리를 돌려 금산으로 갔다. 고경명은 관군인 광영과 합세하여 왜군을 공격하려 했지만 광영은 싸울 의사가 없었다. 관군과 틈이 벌어진 약점을 노려 왜군이 고경명 부대를 포위 섬멸하였다. 고경명은 900명의 돌격대로 일본군을 공격하다가 둘째 아들 인후와 의병장 안영 유팽노와 함께 전사한다. 이때 고경명의 나이 예순이었다. 장남 중후는 아버지와 동생이 빠져나온줄 알았다가 나중에 순국 소식을 듣고 가노인 봉이와 귀인과 함께 시신을 수습해서 장성에 모셨다. 장례를 치른 후 의병 400명을 모아 진주성으로 향했다. 진주성에는 나주 김천일과 양산숙이 들어가 있었고 화순의 최경회 남평의 이종인 순천의 장운 그리고 남원 출신 명장 황진이 일본군 10만을 상대로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전해인 1592년 음력 10월에 있었던 진주성1차 전투의 패전을 설욕하기 위해 일본군 10만에게 진주성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593년 음력 7월 진주성은 왜란 7년 동안 단일 전투로는 최대의 규모였다. 왜군의 기세를 본 권율과 선거이 등의 관군과 명나라 군대도 일본군의 포기하고 말았다. 경상도 의병장 객재우도 진주성을

수성하는 건 자살행위라며 진주성 입성에 반대하였다. 오직 호남의병들만 죽기를 각오하였다. 진주성에는 목사 서예원 휘하 병사 3600명과 호남의병 3000명 등 6600여 명이 있었다고 전한다. 이들은 일본군을 상대로 9일 밤낮으로 전투를 치렀고 결국에는 피란민 6만과 함께 운명을 다하였다.

호남의병은 죽음으로 나라를 지켰고 그들을 의지한 백성과 운명을 함께 하였다. 호남의병들은 1백 년 동안 전쟁으로 단련된 일본군과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웠다. 일본군도 3만이 죽거나 다쳤다 한다. 의병들의 희생 덕분에 호남이 지켜졌고 호남의 쌀로 조선은 후일을 기약할 수 있었다.

이때 왜장을 꺼내고 남강에 투신한 논개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논개는 화순 출신 최경회의 후처이다. 남편의 원수를 꺼내고 남강에 투신한 젊은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도 진주성에 가면 생생하게 남아 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부모 형제를 위해 나아가 백성을 위해 호남의병들은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다.

인권·평화·민주로 설명되는 광주정신은 호남의병정신에 그 뿌리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의병정신은 동학으로 광주학 생존운동으로 소작쟁의로 4·19와 5·18로 이어져 오늘에 이른다. 남구에서는 호남 의병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지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았던 선조들의 이야기를 무대로 꾸며 주민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社說

공항 이전 ‘주민 설득’ 시장이 직접 나서라

광주시 편지 발송 등 대책 마련

광주시가 민간·군공항 무안이전을 위해 주민 설득에 직접 나선다고 한다. 공항 이전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넘어 전남의 미래 100년을 이끌 성장동력이면서 서남권 거점 공항을 육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는 광주시의 결정이 담보 상태에 놓인 공항이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광주시가 무안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은 편지다. 무안군 4만2000여 가구에 광주 민간·군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이전하는 당위성 등이 담긴 강기정 광주시장 명의의 편지를 각 가정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무안지역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주민 설득에도 직접 나선다. 오는 24일 열리는 무안을 시장에서 부시장을 중심으로 무안군민을 만나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9개 읍·면지역 장터를 방문해 주민을 직접 설득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무안군민이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

안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항공기 등의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민간·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은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사업이다. 강기정 시장의 언급처럼 항공과 이용객 수용시설이 전국 5위 규모이며 KTX가 정착하는 유일한 국제공항이 될 수 있는 무안국제공항을 만년 적자공항으로 묵혀두기도 아까운 일이다. 무안공항이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도 광주 민간·군공항과의 통합 뿐이다.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이전은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광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거점 공항’을 무안에 만드는 국가적 사업이다. 광주시는 공항 이전의 당위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적극 홍보해 공항이전을 반대하는 주민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무안 전통시장들을 찾는 열정도 보여줘야 한다. 무안군민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 이해 득실을 합리적으로 따져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쌀값 20만원 보장 한다던 정부, 약속 지켜야

전남도 “15만톤 시장격리해야”

올해도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원 보장’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쌀값 하락에 농가가 쌀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5일 기준 80kg당 19만원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다 15일에는 18만9488원으로 19만원대마저 무너졌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2023년 수확기 이후 모두 5차례의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2월 식량원조용 10만 톤을 매입했음에도 쌀값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더욱이 4월 말 기준 전남지역 농협 쌀재고량은 전년보다 80% 증가한 18만 톤에 달해 올해 신곡 가격에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쌀값 하락이 거세지자 전남도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 정부에 쌀값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15만 톤을 시장격리할 것을 건의했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에는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

한 쌀농업 관측통계가 부정확한 점이 쌀값 정책 실패로 꼽힌다. 쌀값 하락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뒷북 정책’도 문제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이 예정됐지만 여야 갈등이 뻗어 보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0일 양곡법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까지 내놨다.

정부의 안정대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가 제시한 쌀값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벼의 적정 생산과 벼 재배 면적 축소 및 타 작물 전환 유도 등이다. ‘쌀 창고’인 전남은 매년 정부안대로 재배 면적 축소와 타작물 전환 유도에 앞장섰지만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 당장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쌀값 안정 대책은 없고 정책 싸움만 벌이는 형국이다. 정부와 정치권간의 지루한 ‘쌀값 분쟁’으로 농심은 타들어 가고 있다는 걸 알고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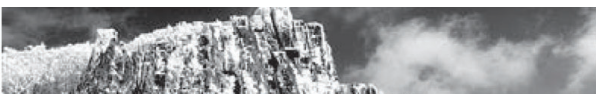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세상

20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카라치의 이란 문화원에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등 헬기 추락 희생자 추모 행사가 열려 참석자들이 애도하고 있다. 라이시 대통령은 아미르 압둘라히안 외무장관 등과 함께 지난 19일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으며 장례식은 23일 그의 고향인 북동부 마슈하드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AP/뉴시스

서석대



사람은 하루 평균 얼마나 거짓말을 할까? 하루에 3번 쉼, 아니면 약 200번. 연구결과마다 수치가 각각 다르지만 ‘인간은 매일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존경의 대상인 고(故) 김수환 추기경은 생전 “나는 두 가지 말을 아주 잘한다. 하나는 참 말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말입니다”라고 했다.

아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거짓말은 보통 만 3세 전후가 되면 거짓말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는 언어 능력과 인지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만 어느 범위까지가 거짓말로 봐야 될까? 흔히 “조만간 밥이나 먹자”라는 말을 거짓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인사치레로 봐야 할지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하여간 거짓말은 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것은 명백하다.

거짓말은 색깔로도 구분된다. 셰익스피어는 거짓말에 색깔을 입힌 첫 인물로 유명하다. 16세기 셰익스피어는 한 편지에 “하얀 거짓말을 제외하고 그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점이 없었다”라고 했다. 이후 하얀거짓말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올랐고 해롭지 않은 사소한 거짓말로 의미했다. 반대로 새빨간 거짓말도 흔히들 사용한다. 그야말로

진실이 1%도 없는 100% 거짓말을 의미한다. 거짓말은 문학의 소재로도 쓰인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늘어나는 피노키오, 양치기소년 등이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성당에서 은춧대를 훔쳤지만 신부는 경찰에 자기가 선물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 있다. 거짓말이라는 소재는 ‘문학적 악상’으로 비유되는 이유다.

인간은 거짓말을 잡아내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까지 개발했다. 하루쯤은 가벼운 거짓말을 허용하는 만우절(4월 1일)도 생겨났다. 지능화된 거짓말 범죄인 보이스 피싱은 사회악으로 꼽힌다. 이젠 인간 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이 거짓말을 하는 시대로 도래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패턴’에 발표한 논문에서 AI가 상대방을 배신하고 허세를 부리고 인간인 척 속임수를 쓴 많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고 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짓말을 주위 담을 수 없다. 극작가 안톤 체호프는 ‘거짓말로 땅끝까지라도 갈 수 있으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다. 거짓말의 대가는 혹독할 뿐이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 욱	논설실장 이용 환	편집국장 박성 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